

광주 학교 10곳 중 7곳 주변에 성범죄자 산다

어린이집·초·중·고 반경 1km 내 1042곳 달해 '전국 두번째' 전남, 683곳으로 30.8%... "치안당국 각별한 관심·지원을"

광주지역 학교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내 성범죄자 거주율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비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총 1406곳 중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학교는 1042곳(7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82.4%, 6299곳 중 5191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구(70.1%, 1757곳 중 1232곳), 부산(69.8%, 2323곳 중 1621곳), 인천(65.8%, 2524곳 중 166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2214곳 중 683곳(30.8%)으로, 세종(7.5%)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적었다.

광주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성범죄자 거주지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은 834곳 중 637곳(76.4%)이 성범죄자 거주지 1km 내에 있었으며, 유치원은 254곳 중 185곳(72.8%)이 인접해 있었다.

광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성범죄자 거주지 1km 내 인접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서울로, 어린이집 83.1%, 유치원 82.2% 등이었다.

초등학교는 155곳 중 108곳(69.8%), 중학교는 92곳 중 64곳(69.6%), 고등학교는 71곳 중 48곳(67.6%)이 인접했다.

전남의 경우 어린이집 39.6%, 유치원 27.0%, 초등학교 21.9%, 중학교 22.4%, 고등학교 30.8% 등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 학교 중에서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례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

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 등이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정보는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키와 몸무게)·사진·성범죄 요지·성폭력범죄 전과 사실·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성범죄 알림이 웹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뿐 아니라 교육기관 반경 1km 등 조건별 검색이나 스마트폰 등 GPS기능을 통한 자기 주변 성범죄자 열람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임동 커뮤니티센터 개소 30일 광주시 북구 임동 커뮤니티센터 개관식 참석자들이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버스운전자 10명 중 4명 '고령'

광주·전남의 고령 버스운전자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운전자 중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 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의 버스운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43.5%에 달했다.

광주의 60세 이상 버스운전자 비율은 2019년 34.2%, 2020년 35.9%, 2021년 39.1%, 2022년 40.4%, 2023년 41.3%로 5년 사이 1.5배 가량 늘었다.

전남 또한 2019년 25.7%, 2020년 28.2%,

5년새 60세 이상 두 배 늘어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감소 버스 산업 살릴 대책 마련을

2021년 32.2%, 2022년 36.8%, 2023년 40.1%, 2024년 8월 43.0%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버스운전자 중 60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40%까지 13.7%p 늘었다. 반면 50세 미만 운전자는 2019년 29.5%에서 2024년 20.9%까지 8.6%p 하락했다.

버스운송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는 감소세다. 광주의 경우 2019년 1086명, 2020년 722명, 2021년 563명, 2022년 653명, 2023년 72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전남에서도 2019년 1262명, 2020년 807명, 2021년 673명, 2022년 685명, 2023년 74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 감소 등 교통 산업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서민교통 수단인 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이재명 습격' 범인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치명

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장 요소가 존재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씨 지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범행을 반성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초범, 고령, 지병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다.

김씨 지인 역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의혹' 광산구 공무원 직위 해제

광주시 광산구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

30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공동주택과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수사 기관에서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함에 따라 광산구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A씨가 2021년~2022년 분양 전환을 한 광산구의 아파트 건설사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광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1월1일~10월 28일) 대비 24.3%(301건→228건),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는 20%(40→32명) 감소추

세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 기간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한다.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 숙취음주 단속도 진행한다.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